

보도일시 (인터넷) 2024. 9. 10.(화) 11:00,
(지면) 2024. 9. 11.(수) 조간

배포 2024. 9. 10.(화) 06:00

어업인과 함께한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성황리에 종료

- 전국 42개 어업인 단체 총 2,007명이 참석해 601톤의 폐어구 수거 성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4년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어촌 마을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어업인과 관련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 어촌마을에 방치된 폐어구를 수거하는 행사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42개의 어촌계나 단체에서 총 2,007명이 참가해 601톤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이는 1년간 시행되는 '침적 폐어구 수거 사업' 실적의 약 17%에 해당하는 성과로,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 이런 의미 있는 결과이다.

이번 대회에서 경남 사천시 낙지연승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대상을 차지해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또한, 전남 고흥군 지죽어촌계와 여수시 남면어촌계는 각각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게 되었으며, 경기도 화성시 화성김생산자협회 등 8개의 어업인 단체에서도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다.

경진대회 동안 어촌계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방치된 폐어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번 성과의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회는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해 기획된 캠페인으로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해양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진대회와 같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어촌마을의 환경 개선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동양 (044-200-5603)
	어구순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정광준 (044-200-5604)

참고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이미지



경남 사천 낙지연승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여수시 남면어촌계



전남 지죽어촌계



경남 능포어촌계